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나신 왕께 경배하세

오늘부터 다양한 성탄예배와 행사

■ 성탄축하찬양예배

20일(주일) 오후 5시

오늘 찬양예배는 할렐루야찬양대 주관으로 성탄축하찬양예배로 드린다. 이 찬양예배에서는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헨델의 '메시아' 중 합창과 아리아 일부를 연주하게 된다.

■ 성탄축하전야예배

24일(목) 오후 7시

교회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성탄절 이브를 찬양과 율동, 성서 낭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민다.

24일(목) 밤 7시 온 가족과 함께 1층 예배실에서 찬양 가득한 성탄절 전야를 보낼 수 있다.

■ 성탄절 새벽예배

25일(금) 오전 5시

25일(금) 새벽에는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하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탄절 새벽예배는 평소와는 달리 5시에 드린다.

■ 성탄절 예배

25일(금) 오전 9, 11시

성탄절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가족 예배로 두 차례에 걸쳐 드린다. 교회학교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개정개역판 성경, 새해부터 공예배 시 사용

우리 교회는 1999년 1월 첫 주부터 모든 공예배에서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키로 했다.

올해 8월에 출간된 개역개정판은 1961년판 개역성경이 사용한 원본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현대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과 옛날식 표기를 바로 잡아 기존 성경의 언어와 표현 중 현대인에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한편 교회에서는 기존의 개역 한글성경도 사용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공예배시에 개역개정판 성경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회학교 교사 임명

13개 부 300명

오늘 I·II·III부 예배 시 1999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갖는다. I부 예배 시에는 고등·대학·청년·새가족부 교사, II부 예배엔 유년·초등·중등·장년·사랑·새가정 교사, III부 예배엔 유아·유치·소망 교사가 각각 임명을 받게 된다. 오늘 임명을 받는 교사는 13개 교회학교의 총 300명이다.

오늘 임명식을 마친 교사들은 이달 말까지 교회학교별로 총회

를 갖는다.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체제는 갖 태어난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성도가 자기 연령에 해당하는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돼 있다. 또한 새가족의 교회적응과 신앙성숙을 돕는 새가족부, 장애인을 위한 사랑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새가정부도 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육목적은 ① 거듭난 인간 ② 성숙한 신자 ③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다.

1999년도 교육위원회

- 지도: 이성득 목사 · 위원장: 김태기 장로
- 서기: 최종시 장로 · 회 계: 김영준 장로
- 위원: 박철훈 장로, 김광신 장로

교회학교	지도	부장	부감
유아부	이영희 집사	서문석 장로	이계홍 집사, 이부자 권사
유치부	신미숙 전도사	노송성 장로	윤찬오 집사, 이해순 권사
유년부	이상진 목사	김영준 장로	조정식 집사, 최정자 권사
초등부	이성득 목사	하영수 장로	우지원 집사, 유명석 권사
중등부	이순환 목사	최종시 장로	홍성주 집사, 김예환 권사
고등부	김정현 목사	김광신 장로	오광환 집사, 권순단 권사
대학부	박귀환 목사	오정수 장로	이완형 집사, 이은옥 권사
청년부	김정현 목사(이만열 전도사)	정병무 장로	김인수 집사, 윤갑숙 권사
장년부	김영환 목사	노문환 장로	황정옥 집사, 이정자 권사
소망부	우심화 목사	왕경래 장로	이변생 집사, 이영희 권사
사랑부	조대영 선생	윤봉준 장로	이승우 집사, 김숙자 권사
새가족부	이순환 목사	김상철 장로	김세재 집사, 이경희 권사
새가정부	박귀환 목사	김태기 장로	김형택 집사, 최양혜 권사

1999년 청지기수련회

1999년도 청지기수련회 일정

1999년도 청지기수련회 일정이 확정됐다. 청지기수련회는 내년 4일(월)부터 9일(토)까지 특별새벽기도회가 끝난 새벽 5시 35분부터 6시 15분까지 2층 예배실에서 실시된다. 수련회 기간 중 요일별로 위원회별·직분자별 특강이 진행된다. 강사는 위임목사와 각 위원회 지도 목사가 맡았다.

구분	교회학교교사	찬양대원	전도회임직원	교구일꾼	권사·집사	목사·장로
일자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5:00	신년특별 새벽기도회(강사: 이종윤 목사)					
5:30	집소여동					
5:35	헌신된 교사와 신앙교육	찬양대원의 자세	전도회 부흥과 실제	교구일꾼의 사명	바람직한 제직	복음의 제사장
6:15	이성득 목사	박귀환 목사	김정현 목사	박귀환 목사	이종윤 목사	이종윤 목사

성탄절 메시지

낮은 데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자

금년에도 우리는 또다시 성탄절을 맞이 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기쁨과 사랑의 계절입니다. 유대 땅에 나신 예수는 지역과 혈통을 초월한 만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떠들썩한 성탄 축제에 비하면 애당초 그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한 객사의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는 처음부터 비천한 자리를 택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33년 생애는 철두철미하게 수난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강보에 싸인 채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도우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봉사와 희생으로 일관했지만 세상은 그를 비난했고 침 뱉으며 채찍을 가하여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손에 고난을 당하시고 죄를 먹고 마시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시되 낮고 천한 자리를 택하여 불품도 뭍지도 없이 가리워진 모습으로 오늘도 오시고 계십니다.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나실 곳을 제공해 주지 못해 천후에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세상 일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갑자기 내려진 호적령으로 인해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는 줄거운 비명을 지르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밀천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종교 시인 노먼 트러트(Norman L. Trott)의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대구요?
장차 어느때가 그대 몸이 병들고
환난이 엄습할 때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하나님께 바칠 것이 없대구요?
장차 어느때가 그대 목숨이 다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하나님과 마주 대할 때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천국을 내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요?

금년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실 곳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너무 분주하여 오신 주님 나실 곳을 마련해 드리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종운 목사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은 탐욕이 눈을 가려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그리스도를 천대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인심 쓰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중 제일 교묘한 것은 주기는 주되 손해보지 않고 인심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베푸기는 아깝고 손해보면서 주기는 억울하고 그래서 주기는 주되 잃는 것이 없이 인심만 쓰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은 예수를 영접하되 이미 확보한 이익을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즉 돈주

고 갈 사람 없는 외양관 한 구석을 내어준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님을 희생 없이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때가 많 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행색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여관집 주인은 돈을 배로 준다 해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님을 희생 없이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도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 들고 소외된 작은 자 하나를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눈에 가리워져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중에 다시 탄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시야를 진정 모실 수 있는 사람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 킬렘

주님 계신 곳이라면

비천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비천함에 참여하시 기 위함이었다.

침침한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은 천박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문둥이를 깨끗케 하시고 앓은뱅이를 일으키시며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되심을 계시하신 것이며 비유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교훈하신 것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들이다.

말 구유 위에 나신 아기 예수는 십자가 없이는 해석이 가능치 않을 것이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시어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성탄 절기에 우리를 찾아 높은 곳이 아닌 비천한 자리에 오시고 대접과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를 택하여 오신 주님을 크게 영접하지 못한 불신을 통회하면서 주님계신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찾아가 주님 모시기를 기도하자.

순례길에 만난 사람

신진성 집사·김찬웅 집사

24시간 예배당을 파수하며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숨어서 헌신하시는 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죠.”

약속이나 한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시는 신진성·김찬웅 집사님. 누구든 교회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두 분 경비 집사님을 만나보았다.

오전 7시 45분에 출근하셔서 다음날 오전 7시 45분까지 만 하루 동안 번갈아 격일로 근무하시는 두 분의 일과는 교회당 1층부터 4층까지 청소와 화장실 청소로 시작된다. 교회 구역 구역 이분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비전 2020 기간 중 철야하시는 교인들을 위해 잠을 설치시며 기다리다가 한밤중에도 문을 열어주시던 두 분의 모습, 또 혹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기에라도 물릴까봐 곳곳에 모기향을 피우는 자상한 수고며, 바자회 기간 중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제일 먼저 나서서 옮기시던 모습... 등등을 많은 성도들은 기억할 것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 부모님 같아 친근감을 갖게 되지요”라고 하시면서 “연속기도회 때 함께 손뼉치며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던 일들을 오래 잊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이신다.

많은 교인들을 대신해 두 분 수고에 고마움

을 표했더니 “될 수 있는 한 더 많이 일하려고는 하지만 마음같지 않아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만 남습니다”라고 하신다. 무엇보다도 많은 교인들이 협력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는 숨은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셨다. 인터뷰 중에도 두 분 수고에 감사하는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사랑 담긴 떡을 대접받으시며 “성도들의 사랑과 협력에 큰 힘을 얻곤 합니다”라고 하셨다.

두 분은 근무 중에도 오전 9시와 오후 9시 두 차례 시간을 정하고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98년이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남기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자기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충성 봉사하는 분들을 찾아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할 때다. 어떤 음식이든 모든 양념이 골고루 섞여야 제 맛을 내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는 많은 교인들이 있기에 오늘의 서울교회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히 자신의 일을 단순한 직업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 하지 않으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항상 웃음으로 교인들을 맞이하시는 두 분 집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해 보면 어떨까.

<문형미 집사>

작은 순례자의 합창을 마치고

천상을 향한 아이들의 합창

강민희(집사, 초동부찬양대 지휘)

무엇인가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유를 갖고 시작하는 일이란 누구든지 더 잘하고 싶고 최상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을 것이라 생각한다.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 많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먼 곳에 사시는 분이 많아 초동부 아이들이 평일에 자주 모이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내가 초동부찬양대를 맡은 지도 얼마되지 않아 사람의 생각으로라면 도저히 잘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여건 하에서도 하

나님을 찬양한다는 절대적 이유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음악이라는 충분한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최상의 음악을 만들게 되기를 기도하며 시작했다.

몇 명 안되는 아이들, 그나마 연습 때마다 대원이 계속 바뀌어 전체적으로 모인 적이 별로 없어 연습에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으시리라는 확신으로 감사함이 넘쳤다. 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나 역시 기도를 쉬지 않으려 노력했다.

막상 당일 음악회가 시작되자 방금 전 리허설 때만 해도 산만하던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

66

길도 무

그 이름

세상에 왔다 간 사람 모두가 이름을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촌동네 깊은 마을의 여인들은 이름 석자도 가지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낸 경우가 허다하다. 김간난, 이섭섭 등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어간 경우가 그것일 것이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그 이름을 제대로 했다고보다는 수치나 부끄러운 허물투성이로 산 경우가 부지기수다. 성군 다윗도 큰 오점을 남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세상살이에서 이름을 다하고 끝낼 만큼 완전한 자가 없었으니 이 어찌 통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름을 하셨으니 이시다.

흠도 티도 없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고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이런 개입에 혈안이 되어서 사기 치고 배반하는 잔란 사람들과는 그 유형이 다르신 예수님은 그 이름이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존경을 받지 않으실 수가 없다. 누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말구유밖에 거처가 허용되지 않으셨으나 온 인류가 그 이름을 인하여 평화를 맛보고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이름 예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자.

라도 한듯이 진지하게 연주에 임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든지! 가슴 뭉클한 가운데 음악회는 하나 하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느끼며 진행되었다.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주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열심을 다해 찬양을 드린 우리 어린이 찬양대원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다. 내 눈에도 이렇게 기특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격려해 주셨더라면 하는 것이다. 내년 작은 순례자의 합창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돌렸으면 좋겠다.

1999년도 각 위원회

■ 선교위원회

지 도 김정현 목사
위 원 장 김상철 장로
서 기 김인수 집사
위 원 김영주 천광영 김동언 김사라
김성준 전기섭 조웅식 김신영

■ 전도위원회

지 도 김정현 목사
위 원 장 최중시 장로
서 기 김태기 장로
회 계 왕경래 장로
위 원 김영준 김상철 박철훈 하영수
오정수 조정식 최형렬 권순단
주경자

■ 구제위원회

지 도 이순환 목사
위 원 장 노문환 장로
서 기 이영기 장로
회 계 최중시 장로
위 원 김태기 박철훈 오정수 정병무
이영자

■ 관리위원회

위 원 장 윤봉준 장로
서 기 이관규 집사
회 계 한길동 집사
식 당 관 리 김태기 이관규 황재목 이양철
김선희 최무순 김영연 강풍자
김용례 이정애 조미경 김영례
임송자 전영자 정선호 이연숙
배은희 송옥혜 이혜경 송순옥
차 량 관 리 박두호 한길동 서춘식 이상호

■ 재정위원회

위 원 장 박철훈 장로
서 기 오정수 장로
회 계 윤봉준 장로
위 원 신용식 고윤화
계 수 위 원 박두영 홍정선 최용걸 안의경
최형렬 김영주 손태기 안창휘
송인권 오유식 최재규 조원창
정무균 임옥균 유형석 서상근

■ 건축위원회

위 원 장 오정수 장로
서 기 서문석 장로
회 계 박철훈 장로
위 원 홍정호 최중시 이영기 하영수
실 행 위 원 광동희 김진환 김재중 오유식
이승우 차현명 손성운 오광환
황선호

■ 동산관리위원회

위 원 장 김영준 장로
서 기 유중관 집사
회 계 권오준 집사
위 원 이영자 김선미

■ 출판국

지 도 이성득 목사
위 원 장 김광신 장로
위 원 김세재 정동호 이종혁 허 숙
박은경 문형미 나소정 나현아
제오복 신용식 신동기 한정아
김수호 임송자 이자혁 오승민

■ 10주년 역사편찬위원회

지 도 이성득 목사
위 원 장 김광신 장로
위 원 노문환 전인화 김중복 방계운

홍성주 백수남 우지원 허 숙
이영옥 김상옥 정동호 박은경

■ 인사위원회

위 원 장 김광신 장로
위 원 김태기 박철훈 이영기 윤봉준

■ 장학회

지 도 이성득 목사
위 원 장 나희주 장로
위 원 김태기 박철훈 이영기 정병무

■ 제직회

서 기 이번생 집사
부 서 기 김세재집사 김재중 집사
회 계 박철훈 장로
부 회 계 성준경 (I부) 홍정호 (II부)
김태기 (III부) 박두영 김영주 나중영
최용걸 최형렬 홍정선

금세기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1999년 1월 1일 0시

송구영신예배가 20세기 마지막 해가 동트는 1999년 1월 1일 0시에 드리려나.

1998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 모든 예배실은 소동하게 되므로 성도들은 30분 전에 입장하여 기도로 새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요망되고 있다.

교회학교 소식

◇중등부는 13일(주일) 중등부 집회 후 장에 인들이 거주하는 예배원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제를 나눴다.
◇대학부는 25일(금) 성탄절 1부 예배 후 영락 보육원을 찾아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일고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등정

◇양양님 집사(5교구)는 안양시 호계동에 "바다횃집"을 개업했다 ☎ 0343-452-1862.
◇이양철·김미향 집사(11교구)는 송파동에 "가나기독교백화점"을 개업했다 ☎ 412-4195.
◇오늘 점심식사는 성준경 장로·장낙희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
2. 교회의 연합연시 행사를 위해
3. 낮은 곳에 호신 주님을 본받아 성탄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